

# 자연으로 돌아간 '지리산 심원마을'

### 야생동물 주 서식처·이동로 관광도로 개통 후 오염 심각 주민 설득 후 5년간 복원사업 일대 '생물군집 서식지' 조성 등산객·차량 출입 금지

지리산국립공원 내 마지막 남은 주거지역이었던 구례군 산동면 심원마을이 야생동물 보금자리로 바뀐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하 공단)은 "2013년부터 시작한 '지리산국립공원 심원마을 철거·정비 및 복원사업'이 지난 10일 완료됐다"고 12일 밝혔다.

심원마을은 지리산 달궁계곡 최상부(해발 750m)에 자리 잡고 있어 '하늘 아래 첫 동네'로 불렸다. 1967년 지리산국립공원 지정 당시 마을 주민 대부분이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토종 양봉을 생업으로 삼았던 산골마을이었다.

하지만 1987년 지리산관광도로가 개통하면서 식당·펜션 등 상업시설이 생겨 지리산 심원마을이 훼손되고 계곡 내 각종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지역으로 지적됐다.



구례군 산동면 심원마을 원래 모습(왼쪽)과 철거 후 모습.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난 10일 심원마을 철거를 완료하고 자생나무를 심어 5년 후면 완전 복원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제공>

특히 심원마을 일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반달가슴곰(현재 47마리)의 주요 서식처이자 이동로로 꼽혀 생태적 보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해 초 지리산에서는 처음으로 야생 상태에서 반달가슴곰 세 쌍둥이가 태어나 환경 보전이 더 시급해졌다.

공단은 심원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설득과 동의를 구했다. 공감한 주민들은 결국 철거를 허락했고 공단은 총 사업비 211억원을 투입해 2013년부터 보

상에 착수, 올해까지 5년 간에 걸쳐 철거 및 복원 사업을 진행했다.

지난해 심원마을 전체 주민 보상(총 166억원)을 마무리했으며, 올해 6월 말 마을 내 20가구 건물 55동, 진입도로 870m(폭 6m), 옹벽 등 모든 인공시설에 대한 철거를 시작해 지난 10일 완료했다.

공단은 철거 지역이 급경사임을 고려해 사스레나무, 국수나무, 병꽃나무 등 지리산 자생수종 총 9종 4만8065그루를 심었다. 식재한 나무의 자연스런 천이(시간 흐

름에 따라 진행되는 식물군집의 변화) 과정과 동식물 서식 등을 관찰할 실시간 영상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했다.

공단은 반야봉(1732m), 노고단(1507m), 만복대(1438m)에 둘러싸인 이 지역을 자연스런 '생물군집 서식지'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옛 심원마을 일대는 건물 철거로 황토색 땅이 드러나 있지만 5년 후면 식재한 나무들이 성장해 생태를 어느 정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철거된 심원마을에는 출입이 금지된다. 심원마을 일대에 들어가거나 차량으로 통행하면 자연공원법에 의해 5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승준 지리산국립공원 남부사무소 탐방시설과장은 "그동안 반달가슴곰들은 지리산 한가운데에 자리한 심원마을에 터를 잡지못해 산 변두리에 자주 출몰했다"며 "심원마을이 자연으로 복귀하며 담비, 수달, 노루, 산양 등 다양한 야생동물을 만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7일에는 지리산국립공원 지정 50주년을 맞아 심원계곡 생태 복원 기념비 제막식이 진행될 계획이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05    몰림 01:43  
해질 17:28    달림 14:48



구름이 많다가 차차 흐려지겠다.

지역별 날씨 (°C)	광주	목포	여수	나주	완도	구례	강진	해남	장성
구름많음	4/15	보성	영광	진도	곡성	고성	담양	무안	보성
구름많음	6/14	순천	영광	진도	곡성	고성	담양	무안	보성
구름많음	9/16	영광	진도	곡성	고성	담양	무안	보성	2/15
구름많음	1/15	진도	곡성	고성	담양	무안	보성	2/14	1/14
구름많음	6/15	진도	곡성	고성	담양	무안	보성	2/14	5/17
구름많음	1/15	진도	곡성	고성	담양	무안	보성	2/14	2/15
구름많음	2/16	남원	구름많음	0/15	0/15	0/15	0/15	0/15	0/15
구름많음	0/15	축산도	구름많음	8/15	8/15	8/15	8/15	8/15	8/15
구름많음	2/14								

◇바다 날씨

바다 날씨	오전	오후
서해 앞바다	남~남서 0.5	남~남서 0.5~1.0
남해 앞바다	남~남서 0.5~1.0	남서~서 0.5~1.5
남부 앞바다	북서~북 0.5	서~북서 0.5
남해 서부 앞바다(동)	북서~북 0.5~1.0	서~북서 0.5~1.0
남해 서부 앞바다(서)	북서~북 0.5~1.0	동~남동 0.5~1.5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3:06	10:03
	15:24	22:38
여수	11:21	05:36
	--:--	17:48

◇주간 날씨

날씨	14(화)	15(수)	16(목)	17(금)	18(토)	19(일)	20(월)
구름	8/16	4/11	2/4	7/17	3/10	0/10	1/12

◇생활지수

생활지수	지수
산불위험	보통
자외선	낮음
미세먼지	보통

## 광주·전남 16일 수능시험일 반짝 추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오는 16일 광주·전남지역에 반짝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인다.

12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6일 광주·전남지역의 기온은 평년에 비해 2도 낮은 최저 2도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됐다. 이는 올 들어 가장 낮다. 이날 고기압 가장 자리에 들어 구름이 많았으며, 오후에는 추위가 풀려 평년 수준인 최고 14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지난해 수능 당일

(11월 17일) 기온이 최저 8도, 최고 20도를 보이는 등 다소 포근했지만 올해는 오전에 다소 쌀쌀하겠다"고 내다봤다.

기상청은 14일에는 기압골 영향에서 벗어나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고기압 영향을 받아 새벽 한때 광주, 장성, 담양, 영광, 화순 등 일부 지역에 한 차례 비가 올 것으로 예보했다. 수능 전날인 15일 서해와 남해 일부 바다에서는 수능 당일(1~2m)보다 물결이 0.5m 정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 /김현영기자 young@

## 광주경찰 광역시 첫 '실종 수사팀' 구성

### 강력계 베테랑 24명 전담

광주경찰이 광역시 중 처음으로 '실종 수사 전담팀'을 꾸리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12일 "실종자 수색과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광역시 최초로 실종수사 전담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 10일 청사 무동홀에서 '실종수사 전담팀' 발대식을 개최하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실종수사 전담팀은 강력계 형사 등 베테랑 경찰관 24명으로 구성됐으며, 실종·가출인에 대한 수색·수사를 전담하게 된다. 실종수사 전담팀은 신고 접수

즉시 범죄혐의와 관계없이 현장출동을 원칙으로 하며, 18세 미만 아동과 여성의 경우 강력형사·지역경찰이 함께 출동해 수색과 수사를 동시에 진행하게 된다.

특히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단순 가출인에 대한 추적수사도 병행한다.

배웅주 광주지방경찰청장은 발대식에서 "실종수사는 시민의 생명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실종수사 전담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광주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한 치안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민주광장서 재현된 칠석마을 고싸움놀이    지난 11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5·18민주광장에서 '문화로 하나 되다' 주제로 열린 '제3회 광주·전남문화주간' 행사에서 남구 칠석마을 고싸움놀이(국가 무형문화재 제33호)가 펼쳐져 관객들의 흥을 돋웠다. /최현배기자 choi@

## 끊이지 않는 교직원 '비위'

### 광주교육청 2년간 118명 징계

광주시교육청 교직원의 비위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 성희롱, 성추행, 금품수수, 불륜, 음주운전을 비롯해 교사채용 과정에서 돈을 받아 파면된 교사도 있었다.

12일 광주시교육청이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9월 말 기준)까지 학교와 분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등에서 징계를 받은 교직원은 118명에 달했다.

지난해는 73명, 올해는 45명이다. 2015년 43명인 점을 고려하면 가파르게 증가한 셈이다. 올해의 경우 일선 학교에서 36명, 분청과 지원청에서 각 4명과 3명, 직속기관에서 2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 목포 떠난다

### 내일 신항서 거취 기자회견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이 목포신항과 작별을 준비하고 있다.

12일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에 따르면 지난 4월 11일 목포시 목포신항에 세월호를 거처 뒤 이후 지내오던 목포신항을 떠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수습자 가족들은 13일에 해양수산부

등과 논의를 거친 뒤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고 14일 목포신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앞으로 거취에 대해서 발표 예정이다.

현재까지 단원고 고창석 교사, 단원고 조은화·하다운 양, 이영숙 씨 등 4명이 가족품에 돌아와 목포신항을 떠났으며 남아 있는 세월호 미수습자는 단원고 남현철·박영인군, 단원고 양승진 교사, 권재근·혁규 부자 등 5명이다. /김현영기자 young@

# 울로(YOLO)이오~쇼~

### 경품평평!! 사은행사

**1등**

300만원 디지털 상품권 (1명)

**2등**

LG 전기 건조기 (1명)

**3등**

갤럭시 태블릿PC (1명)

**4등**

샤오미 미밴드2 (100명)

\* 상품이미지 사진은 실제 상품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제세공과금은 당첨자 부담입니다.

### 기원 기념품!!

보조배터리

손톱 깎이 세트

모바일 쿠폰

보온보냉병

### ■ 자격조건 (아래 항목중 한가지 이상 충족시 개수별 지급)

상품구분	자격기준	기념품 및 경품권 지급대상
체크카드	최초 신규발급 이용자	당월 5천원 이상 이용시
대출	신규신행 고객 (공제안 및 예적금법외내 제외)	실행시
정기예금 및 적금	신규가입 고객	당월 1건에 한함
출자 적립	10만원 이상 입금시	최초 1회
생명공제	신규가입 고객	중복 지급 가능
손해공제	신규가입 고객	
급여/가맹점	신규연결 고객	
스마트뱅킹	신규가입 고객	가입시
스마트일링	신규가입 고객	
상상뱅크	신규가입 고객	

18년 1월말 상품별 유지자 '경품행사' 추천대상

## 예금특판

**정기에탁금**

1년 **2.4%**

2년 **2.5%**

**정기적금**

1년 **2.2%**

2년 **2.3%**

3년 **2.4%**

**입출금이 자유로운 자신만만 자유예탁금!**

단 하루를 맡겨도 **최고 1.6%**

(금역에 따라 이율 차등 적용)

행사기간 | 2017년 10월 16일(월) ~ 12월 29일(금)

경품추첨 | 2018년 2월 예정(18년도 정기총회)

**MG금남새마을금고**

대인본점 ☎ 223-8007, 232-7251

충장지점 ☎ 223-7217, 223-7218